



더민주 광주 후보들 “경제를 살리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민주 경제살리기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첫 사전투표제, 선거 판도 흔들나

내달 8~9일 전국 읍·면·동사무소 3511곳서 투표 가능 여야, 판세 영향 주시... 선관위, 참여율 높이기 홍보 박차

4·13 총선에서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모두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서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권자들

의 투표 참여가 확산,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3511곳을 설치,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광주에는 95개소, 전남에는 297개소가 각각 설치된다. 구체적인 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참조하면 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채 사전투표소에 가면 전용 단말기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같은 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총 세 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 홍보 등에 힘입어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경종 뒤편었다. 일단 이번엔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올려 선거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야는 사전투표제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이 대체로 50%대 안팎에 머물렀지만 사전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오르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다. 따라서 야당 지도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율 독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사전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도입 제도”라면서 “특히 전국 단위 총선에서 실시되는 첫 사전투표인만큼 홍보와 안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1층 사전투표소·승강기 이용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고 ▲투표 당일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차량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오는 29~30일 사전투표 장비 1만 2159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전국 2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3.5cm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21개 정당 난립 때문

4·13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 기록인 33.5cm에 달한다. 역대 최다인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0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지난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는 31.2cm였다. 이처럼 정당 수가 많아지면서 유권자의 혼란도 예상된다. 투표용지 한 장에 수십 개의 정당명이 표기돼 자신의 지지정당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소정당 중에는 진반통합, 진반국민대통합, 진반평화통일당처럼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과거 유력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신생 정당이 많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전국에 배치하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모두 1523대다. 2014년 도입된 기계로, 길이 30cm 이상 투표용지 분류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이미지 스캐너로 읽어 어떤 후보에게 던진 표인지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계가 1차로 분류하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시 한 번 투표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1번·더민주 2번·국민의당 3번

지역구 후보자 기호 배정

20대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지난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의 공통기호는 현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새누리당이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당 3번, 정의당 4번 등으로 전국 통일 번호가 주어졌다. 또 각각 1석을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당과 민주당은 추첨을 통해 5번과 6번이 배정됐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 기호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기 위해선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 ▲직전 대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 후보들의 뒤를 이어 후보자 이름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일부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등록하지 않거나 비례대표 명단만 등록해 선거 기호가 지역구와는 다소 달라진다. 비례대표는 21개 정당에서 158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신고 들여다보니

최고 재력 임명규 도의원 77억2539만원 최다 증액 김철주 무안군수 9억722만원 ↑

광주·전남 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스크린골프존이나 의료시설, 바이올린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유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거주지 주변 대규모 토지, 수 억원대의 예금 자산 또는 주식 등이 ‘재력’을 갖춘 공직자의 특징이었다. 광주·전남 전체 대상자 중 최고 재력가는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1150만원이 증가한 77억2539만원을 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종전 가액이 7억여원, 3억여원의 건물 2채를 올해 싼 가격에 팔고, 고흥 등에 35억원 상당의 토지와 35억원대 예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2억29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배우자 명의 1억3500만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존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19억 1000만원을 등록했다. 임 의원에 이어 1000만원을 등록했다. 임 의원에 이어 정연선 의원 65억2535만원, 명현관 의사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서일용 도의원(-3억3414만원), 김효남 도의원(-8104만원) 등 2명은 재산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올해 전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감한 공직자는 김철주 무안군수로 9억722만원, 조종훈 순천시장은 그 다음으로 7억4792만원이 증가했다. 모두 본인 및 배우자 등 예금 및 보험 불입금 증가 등을 재산 증가 이유로 들었다. 김안규 나주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56억원대 의료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7억 9000만원대 주유소를 갖고 있다. 이는

방 광주시의원은 골삭기 2대, 덤프트 6대, 로우더, 자동차 등 건설기계장비 2억7000여 만원 상당을 등록했고 배우자의 1.04캐럿 다이아몬드(700만원)도 신고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임순에 남구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5349만원이 늘어난 34억5398만원을 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종전 가액이 7억여원, 3억여원의 건물 2채를 올해 싼 가격에 팔고, 고흥 등에 35억원 상당의 토지와 35억원대 예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2억29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배우자 명의 1억3500만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존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19억 1000만원을 등록했다. 임 의원에 이어 정연선 의원 65억2535만원, 명현관 의사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서일용 도의원(-3억3414만원), 김효남 도의원(-8104만원) 등 2명은 재산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올해 전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감한 공직자는 김철주 무안군수로 9억722만원, 조종훈 순천시장은 그 다음으로 7억4792만원이 증가했다. 모두 본인 및 배우자 등 예금 및 보험 불입금 증가 등을 재산 증가 이유로 들었다. 김안규 나주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56억원대 의료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7억 9000만원대 주유소를 갖고 있다. 이는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권자 개표 참관인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13 총선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그동안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미봉인 개표참관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과 같은 부정투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250개 개표소에 2800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동구 10명, 서구 15명, 남구 10명, 북구 15명, 광산구 15명 등 모두 65명이 선정된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 시·도·시·군·구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호텔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 모집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자되실 분, 투자하실 분, 부동산중개업 오픈하실 분, 경 공매 컨설팅하실 분, 기타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 과목: 실전경제, NPL, 토지, 상가, 공장, 특수물건, 금융, 도시계획, 병도, 기타 (월~금, 요일별로 과목이 다름, 요일별 수강 가능, 상담요망)
- 과정: 각 과목당 1개월 완성
- 개강: 매월 초 (수시접수, 신청순 30명 마감)
- 시간:

오전반	10:00 ~ 11:50
오후반	17:00 ~ 19:00
- 특전: 이해될 때까지 반복수강 가능, 명사특강자 수강료 할인 등 기타.

강사 초빙

경험과 재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십니다. 교수들의 문의를 고대합니다.

모집공고

- 부동산금융대출분야 (특수물건대출, NPL담보대출, 미준공건물담보대출, 배당채권담보대출, 신탁부동산대출 등)
- 상가분석분야 (상가개발, 분양, 투자, 입지분석 등)
- 토지개발실전문자분야 (토지개발행위분석,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개설, 건축관련법규분석, 특수토지의 활용방안분석,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재테크 종합학원
한국토지경매학원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주) 4층
☎ 062 - 229 - 1512

봄(그림)을 선물하세요

착한가격(20~90만원)으로 유명 작품 한점 소장하세요

특별한날에 (개업, 승진, 이사, 기념일 등) 멋진 그림 한점 선물하신다면 ~

- 광주 전 지역 배달가능
- 유명 작가분 그림도 판매 합니다.

문화갤러리
Open | Am 10 ~ Pm 6시 (일요일 휴무)

010-6233-1950